

□ 2021.6.21.(월) 08:41:22 기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 (腾讯新闻)

较上日+0	较上日+106	较上日+127	较上日+19	较上日+16	较上日+11
147	12906	117548	462	6414	5395
本土现有确诊	现有确诊	累计确诊	无症状感染者	境外输入	累计死亡

○ 6월 20일 0시-24시 31개 省 확진자 총 17건, 해외유입 16건(광둥 6건, 윈난 3건, 베이징 2건, 상하이 1건, 푸젠 1건, 허난 1건, 쓰촨 1건) 지역사회 감염 1건(광둥)

□ 2021.6.14.(월)~6.21.(월)

○ 中 신규 확진자 17명 증가, 해외유입 16명, 광둥 1명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이하 위건위)는 20일 0시~24시 본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17명(해외유입 16명, 광둥 1명), 신규 퇴원 환자가 8명, 사망자가 0명, 의심 환자는 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현재 확진 환자는 519명(해외유입 372명), 누적 신고 확진자는 9만 1604(해외유입 6414명), 누적 퇴원 환자는 8만 6449명(해외유입 6042명), 누적 사망자는 4636명(해외유입 0명), 의심 환자는 1명으로 집계됐다.

당일 본토에서 코로나19 신규 무증상 감염자가 19명(해외유입 19명)으로 집계됐으며 4명은 확진 환자로 진단받았다. 현재 의학관찰 받고 있는 무증상 감염자는 462명(해외유입 441명)으로 통계됐다.

위건위는 본토 이외 홍콩특별행정구에서 1만 1886명(퇴원 환자 1만 1614명, 사망자 210명 포함),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53명(퇴원 환자 51명 포함), 타이완 지역에서 1만 4005명(퇴원 환자 1133명, 사망자 549명 포함)의 확진 환자가 집계됐다고 전했다.(卫健委, 2021.6.21.)

○ 中, 아프간에 코로나19 백신 지원...아슈라프 가니 대통령 “중국 정부에 감사”

중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지원한 코로나19 백신 전달식이 12일 아프간 대통령 관저에서 열렸다.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과 와히흐 마즈루 보건부 장관, 왕위(王慰) 주아프간 중국 대사 등이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번에 중국이 지원한 백신은 지난 10일 카불에 도착했다.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은 전달식에서 “중국이 아프간에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한 것은 아프간과 중국의 우정을 보여주는 것이자 아프간 국민에 대한 중국 국민의 지지를 강력하게 증명하는 것” 이라면서 “아프간은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중국산 백신을 적시에 배포해 그들이 중국 정부와 국민의 돈독한 우정을 실감하게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아프간은 특별한 시기를 겪고 있어 중국이라는 위대한 이웃국과의 우정을 더욱 소중히 여긴다” 면서 “중국과 포괄적인 대화 및 협력을 펼쳐 대중국 수출을 확대하고 경제무역 협력과 국민 간 왕래를 강화하길 바라며, 중국이 아프간에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해 아프간의 방역 능력 향상과 미래 경제 발전 촉진을 돕길 희망한다” 고 덧붙였다.

왕위 대사는 “중국과 아프간 정상의 관심과 양국 정부 관계 부처의 힘을 합친 협력으로 중국 정부가 아프간에 지원하는 코로나19 백신이 순조롭게 전달됐으며 중국 정부가 지원한 기타 의료 물품도 속속 카불에 도착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은 시종일관 보건건강 공동체 이념에 따라 각국과 단결 협력해 당면한 어려움 극복하고 전 세계 방역 협력에 중국의 지혜와 역량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계속해서 아프간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협력하여 방역할 것이며 힘 닿는 한 아프간의 방역을 돕는 것을 지속할 것이다. 중국은 아프간의 평화 화해 프로세스를 지지하고 평화적 해결의 큰 방향을 견지해 아프간의 평화 재건 성과를 보호할 것” 이라고 말했다.(新华网, 2021.6.21.)